

# 雪門

불기 2557년  
겨울호  
통권 제127호  
雪門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6(가을)호를 읽고 -

- ⓐ 운문지는 내가 나태해질 무렵이면 재발심하게 해주는 참 좋은 도반입니다. / 사교과 지산
- ⓑ 서장과 선효를 배우는 사집의 끝자락에서 禪敎一致를 위해 문수선원을 세우셨다는 말씀과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문수선원의 풍경과 선원장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선효를 배우면서 나중에 선방 가서 참선해야지 하는 방일한 생각보다 지금 여기 이 도량, 새벽 참선시간부터 일상생활에까지 禪과 敎가一致가 되는 노력을 게울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선원장 스님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사집과 능관
- ⓒ 표지에서 만난 은행나무, 비로소 눈을 떠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2013년 운문사의 가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 사집과 종윤
- ⓓ 천여 명의 선배 스님들을 볼 수 있어 뜻 깊은 기울철을 운문지에서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 사미니파 혜원
- ⓔ 오래된 운문사의 은행나무, 그가 지난 오랜 침묵을 담겠습니다. / 사미니파 태우
- ⓕ 네 가지의 수행자…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겼습니다. / 사미니파 청암

# 雲門

##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6(가을)호를 읽고       |
| 04 | 죽림현        | 일일시출가日是出家 평성                          |
| 06 | 교수논단       | 青梅印悟의 技頌詩 考究 ① 원법                     |
| 11 | 풍경소리       | 공부는 전일하게 해라 편집부                       |
| 12 | 雲門隨想       | 설현당에 부치는 편지 현공                        |
| 14 | 雲門隨想       | 설현당 사집과 일동                            |
| 15 | 雲門隨想       | 오늘도 내일도 맑음 평우                         |
| 16 | 기획연재       | 환절기 감기이야기 김승필                         |
| 19 | 자유기고 1     | 복조리 사다 거세요 신현득                        |
| 20 | 담소         |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br>인생은 행복하여라 허주희 |
| 22 | 특별기고       | 수행자와 사찰음식 쪽문                          |
| 26 | 차례법문       | 오직 갈 뿐 흐주                             |
| 28 | 학인논단       | 한국 경제·사회복지의 21세기 현상 ② 혜명              |
| 34 | 자유기고 2     | 강원생활 도율                               |
| 36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인도, 부처님의 나라 현우                        |
| 38 | 수행의 두레박 둘  | 관세음 보살님 유진                            |
| 40 | 수행의 두레박 셋  | 여름을 되돌아보며 짧은 이야기 무진                   |
| 42 | 사찰탐방       | 근대문화의 거리, 군산 원일                       |
| 45 | 想          | 일심동체一心同體 진옹                           |
| 46 | 이 한 권의 책   | 리더스 웨이 동환                             |
| 48 | 운문논평       | 소통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통권 127호, 겨울호, “해 오름 달”                |

## 일일시출가 日日是出家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수행자인 우리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출가를 했습니다. 행자 생활과 승가대학과정, 대학원 과정 등 길게는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원을 세우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득 부딪치는 경계를 뛰어넘지 못해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퇴굴심退屈心에 게으름을 피웠던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려나지 않는 마음으로 본원을 반조返照하여 당당한 출가 수도승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과연 진정한 출가란 무엇일까요? 서산대사는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기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다.”

세상에서는 ‘출가’를 세상의 고통을 피하는 도피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기는 오히려 그런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과 자기 내면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그 근원을 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 냉철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처절한 고독과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無我無不我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다. 無家無不家”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을 없애면, 자타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미혹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히려 나 아닌 것이 없게 되며, 그 자리自利가 곧 온 세상이 모두 나이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불보살들께서도 다 그렇게 그 자리를 참고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망상 분별에 바탕한 집착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늙어도 어리석은 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는 마땅히 사상四相을 없앰을 최고의 계문으로 삼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을 해나감에 늘 내 뜻에 맞는 경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이 일으킨 큰 서원을 생각하고 얻을 것이 없음을 방편으로 하여, 세상에 무궁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정진하여 나와 남을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 출가 수행자가 걸어야 할 큰 서원이며 정진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졸업하는 졸업생 39명은 더욱 명심하여 정진 잘하시고,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

# 青梅印悟의 拈頌詩 考究 1

원법 / 운문승가대학 중강

## 목 차

- I. 序言
- II. 青梅의 生涯
- III. 振綱宣義의 拈頌詩
  - 1. 拈頌詩의 源流
  - 2. 無分別智의 空性과 天然之心의 佛性을 拈頌
- IV. 結語 – 青梅拈頌詩의 特徵과 意義



## I. 序言

본고는 青梅印悟(1546~1621)가 남긴 『青梅集』을 底本으로 하여 청매가 남긴 선시작품 가운데 특히 拈頌詩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매는 清虛休靜의 제자로 青梅門派를 이룬 禪

僧으로 泗溟惟政등과 함께 전쟁에 3년간 참여하여 민중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당시의 세태를 비판한 시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 그의 시문집인 『青梅集』 두 권에는 조사들의 본칙 공안에 대해 자신의 悟處로 그 綱要를 제시하고 妙意를 나타낸 拈頌詩 148편과 詩 163편이 실려 있다. 고려 眞覺國師 慧謙의 『禪門拈頌』 이후 頌古 혹은 拈頌詩가 사실상 단절되었는데 청매에게서 그 맥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拈頌詩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禪의 수행과 體驗, 悟道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청매의 선시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청매의 생애를 간략히 조망하고 그의 拈頌詩를 대상으로 시적 특징과 의의를 논해 보고자 한다.

## II. 青梅의 生涯<sup>1)</sup>

青梅印悟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은 승려로 印悟는 그의 이름이며 자는 默契, 青梅는 號이다. 어려서 출가, 송운과 더불어 묘향산의 서산에게서 법을 전해 받았다.

1587년 봄 변산의 月明寺에 주석, 1591년 묘향산에 주석하며 참선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골육이 헤어지고 부역이 더욱 심해져 처자식이 헤어지고 산중에도 회비가 끊어져 병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고 선방 옷을 벗고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1595년 삼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난 뒤 부안의 邊山에 머물렀으며 1610년에는 도솔암을 직접 짓고 살았다. 1621년 지리산 영원사에서 입적하여 다페를 하였다. 이때 청매 나이 76세였으며 변산의 實相寺에 사리를 모셨다.

청매의 法系는 사명과 더불어 청허로부터 傳鉢하였으며 청매문파를 이루었다. 제자로는 瀛鑑慧日, 碧雲雙運, 白月湛義, 碧雲運嗣가 있고 손상좌로는 無影坦憲이 있다.

청매는 늘 아미타불에게 예하고 농엄주를 외우

기도 하며 계정혜 삼학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은 아래의 시에서 발견된다.

三能三不能 세 가지 능한 것과 불능한 것이 있  
는데

佛佛悉如是 모든 부처님도 다 이와 같도다.  
平生一不禮 평생 한 번도 예하지 아니하니  
佛於爾何以 부처님이 너를 어찌하리오.  
身被釋迦服 몸에는 석가의 옷을 입고  
口歎毗盧血 입으로는 비로의 피를 마신다.  
釋子盡成佛 석자들이 다 성불한다면  
農家必無犧 농가에는 반드시 송아지가 없을  
거네.

「示諸僧」其一, 『青梅集』(『韓佛全』8, 146면 상)

모든 부처님도 세 가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세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상이 空해서 만법을 아는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과 모든 유정들의 성품을 알고 억겁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할 수 없는 것은 정혜진 업은 소멸시킬 수 없는 것과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중생계를 놓히 다 제도하여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sup>2)</sup>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출가하였으면 승려로서 조석예불등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소홀히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승려들에게는 諸佛도 어찌 할 도리가 없다. 도

를 이루겠다는 자극한 마음인 能禮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所禮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身出家는 하였으나 心不出家인 승려의 과보를 ‘한 승려가 길을 가다가 보리가 여물었는지 두세 알을 따먹고 3년 동안 소의 몸으로 그 과보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禪家龜鑑』에도 “만약 털을 덮어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있는 소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신도들의 施物을 헛되이 받아쓰는 수행자의 뒷날 모습”<sup>3)</sup>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과에 대하여 “한권의 경전도 보지 않으면 질문하여도 병어리 양과 같은지라, 가마솥에 끓여지고 화롯불에 지져지는 과보를 피할 수 없다.”<sup>4)</sup>고 당시 승려의 모습을 비판하고 인과가 역연함을 알아 부지런히 경책할 것을 경계하였다.

이렇게 일체시 일체처에서 항상 수행자로서의 자기점검을 요구하는 모습은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결과만 바라는 것은 도를 구하는 데 이익이 없고 안으로 덕을 견실히 닦지 않으면 밖의 위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음이 진실치 않으면 말을 잘해도 이익이 없다”는 등 그의 「十無益」에 그대로 드러난다.<sup>5)</sup>

청매의 시문집으로 『青梅集』 2권이 있다. 上卷에는 達磨 아래 역대조사의 행적 중에서 핵심적인 일들과 『傳燈錄』, 『碧巖錄』 등에 제시되어 있는 話頭의 문답 등 칠언절구의 傷頌 148편이 실려 있다. 下卷에는 禪師로서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였거나 후학들을 경계하고 공부 지어가는 법을 보여준 시, 출가자로서 山居의 즐거움을 읊었거나 산수 간을 유람하면서 읊은 시, 임란과 관련된 승려로서의

1) 청매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 조명은 김상일, 「청매선사의 생애와 임진왜란 관련시에 대하여」, 『불교학보』, 제62집, 불교문화연구소, 2012와 즐고, 「청매인도의 선시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6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3년 참조

2) 張商英 『護法論』(『大正藏』52, 638면 상) “佛有三能三不能 佛能空一切相成萬法智 而不能創滅定業 佛能知群有性窮億劫事 而不能化導無緣  
佛能度一切有情 而不能盡衆生界 是謂三能三不能也”

3) 清虛休靜, 『禪家龜鑑』(『韓佛全』7, 642면 상) “要識披毛戴角底 卽今虛受信施者是”

4) 「示諸僧」其二, 『青梅集』(『韓佛全』8, 146면 상) “不看一卷經 扣之如羊啞 鐵湯爐炭畔 明明記汝過”

5) 「十無益」, 『青梅集』(『韓佛全』8, 154면 중~하) “心不返照 着經無益 不達性空坐禪無益 輕因望果 求道無益 不信正法苦行無益 不折我慢 學法無益 內無實德 外儀無益 欠人師德 濟衆無益 心非信實 巧言無益 一生乖角 處衆無益 滿腹無識 慢慢無益”

입장과 감회, 저간의 상황을 노래한 詩 등 163편의 詩와 記·書·疏·祭文·贊·論 등이 있다.

### III. 振綱宣義의 拈頌詩

#### 1. 拈頌詩의 源流

本覺眞性과 그 본자진성을 悟修하는 것을 ‘禪’이라 한 達磨禪이 六祖 慧能(638~713)에게 傳燈된 이후 馬祖道一(724~814)의 生活禪과 臨濟義玄(?~867)의 臨濟宗 형성, 그리고 宋代 이후 大慧宗杲에 이르러 看話禪으로 대성한다. 이때 不立文字, 教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통한 自證自悟가 선의 宗旨가 되었는데<sup>6)</sup> 이 文字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禪家에서는 부득불 문자를 쓰게 되었다. “이로 인해 語錄이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公案에 대하여 拈古, 頌古, 評唱, 代別 등의 주석과 더불어 禪詩가 발달되었다. 특히 舍蓄, 象徵, 逆說, 絶慮, 譬喻 등의 修辭는 한시의 형식과도 부합되어 선시가 활발히 作詩되었다.”<sup>7)</sup>

이 “선적 깨달음이 시로 표현되는 發源은 대체로 慧能과 神秀의 儀頌에서 찾아진다. 五祖 弘忍이 慧能과 神秀의 儀頌을 보고 慧能에게 心印을 전해 주는 데서 儀頌이 깨달음, 곧 法을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계승이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를 근거로 하여 지어질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과, 儀頌에서의 入道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自性을 보아서 佛法의 大義를 깨달았느냐의 여부에 있다는 점”<sup>8)</sup>을 알 수 있다.

특히 宋代 看話禪의 발달과 함께 拈頌集이 출현하면서 頌古와 拈古의 儀頌문학이 크게 유행하였다. 拈頌이라는 의미는 拈은 끌어 잡아내다, 드러내 보인다는 뜻으로 綱要를 드러내 보여 제기한다는 말이다. 頌은 시이다. 앞의 拈이 산문이라면 頌은 운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頌이란 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뜻을 송하였다는 말이다. 즉 拈頌은 강요를 잡아 제기하고 선의 오묘한 뜻을 펴서

나타내는 ‘振綱宣義’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9)</sup>

일반적으로 儀頌은 詩偈, 頌古, 歌頌 등을 통칭하는데 범어의 伽陀 혹은 偈陀의 音譯인 儀와 한역인 頌을 함께 부른 것이다. 즉 인도문학 가운데 불전문학인 봇다의 공덕을 친탄하거나 교리를 설명할 때 산문의 내용을 다시 운문으로 거듭 쓴 祢夜와 운문만으로 이루어진 偈陀와의 형식이 있었다. 이 계승은 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한시형식으로 융합되었다.<sup>10)</sup>

최초의 頌古集은 임제종의 汾陽善昭(947~1024)가 편찬한 『頌古代別三百則』이며 운문종의 雪竇重顯(980~1052)은 『頌古百則』을, 圓悟克勤(1063~1135)은 『頌古百則』에 評唱, 垂示, 着語를 한 『禪巖錄』을, 天童正覺(1091~1157)은 『百則頌古』를 지어 問答의 내용을 詩로 풀어내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眞覺國師 慧謹이 『禪門拈頌』 30권을 지어 그 가운데서 公案 1125則을 잡아 기록하였다. 혜심은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해 동시대 불교계의 頌古문학적 흐름에 부응하여 간화의 방편으로 선문염송을 편찬해 간화선을 대중적인 선법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려선 또는 문학적인 선으로 전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11)</sup> 이어 고려 중기의 승려 覺雲이 스승인 慧謹이 저술한 『선문염송』에서 중요한 말을 뽑아서 여기에 주석을 붙여 『禪門拈頌說話』를 지었다. 이후 청매에 의해 拈頌詩<sup>12)</sup>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된다.

#### 2. 無分別智의 空性과 天然之心의 佛性을 拈頌

청매는 양무제와 달마의 문답으로부터 육조 혜능까지를 비롯하여 사자상승한 고승들의 拈頌詩 148편과 선승으로서의 깨달음과 本分事를 보인 171편의 시작품을 남겼다. 이제 청매의 깨달음의 세계를 음미해 보자.

同一性故法無取 동일한 성품이기에 법에는 취할 것 없고

絕異相故法無舍 다른을 끊은 모양이기에 법

에는 버릴 것 없노라  
盡力高聲喚不應  
온 힘으로 소리쳐 불러도 응  
함이 없나니  
要看北斗南天下  
바라건대 북두칠성을 남쪽하  
늘에서 보아라.  
「五祖答性」, 『青梅集』(『韓佛  
全』8, 130면 중)

오조 홍인이 동자로 있을 때 사조 도신이 姓을  
묻자 ‘佛性’이라고 대답함에 사조가 다시 姓이 없  
느냐고 묻자 홍인이 ‘性이 空이기 때문’이라고 한  
本則에 대한 청매의 詩이다.

온 힘으로 소리쳐 불러도 응함이 없는데 왜 갑  
자기 청매는 북두칠성을 남쪽에서 보아라고 하는  
가? 북두칠성은 북쪽하늘에 있어 남쪽하늘에서는  
당연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깨달은 이에게는 북쪽  
도, 남쪽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分別心으로 형성된 관념상의 방위 개념일 뿐이다.  
내가 힘을 다해 부르든 부르지 않은 대상은 관계하  
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색깔을 낼 뿐이다. 부르는  
것도 나의 법성이요, 북두칠성이 남쪽으로 떨어지  
는 것도 북두성의 법성일 뿐이다. 여기서 異相은 북  
쪽과 남쪽 등의 대상이다. 그 각각의 다른 모양이

끊어졌는데 다시 버릴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同一性’이 곧 ‘絕異相’인 것이다. 本性과 現相의  
兩邊을 모두 끊어버린 자리이기에 취하고 버릴 것  
이 없음은 당연지사다. 이 도리가 곧 ‘性이 空’인  
이유이다.

完離無分追千里 어린 새끼는 분간이 없어도  
천리를 쫓아가고  
跛兔而能徑奪伊 절름발이 토끼는 빠르게 저  
쪽으로 달아나네.  
問道答山眞大好 도를 묻는데 산을 답함은 참  
으로 좋은 것  
白雲深處孰能窺 흰 구름 깊은 곳을 누가 놓히  
엿보리오.  
「惟寬好山」, 『青梅集』(『韓佛  
全』8, 133면 중)

어떤 스님이 大徹惟寬(755~ 817)에게 물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유관이 이르기를 “매우 좋  
은 산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도를 묻는데 어찌 하  
여 산을 말합니까?” 유관이 이르기를 “네가 산밖  
에 모르니 어찌 놓히 도를 통달하리오.”라는 본칙  
에 대한 송이다.

- 
- 6) 즐고, 「조선조 18세기 선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2~29면 참조
  - 7) 이종찬, 「한국선시의 이론과 실제」, 이회출판사, 2001, 15면
  - 8) 주호찬, 「고려말 오도송 연구」, 보고사, 2006, 61면
  - 9) 了父, 「重刊拈鶯說話序」, 『禪門引古對古頌說話會本』(『韓佛全』5, 2면 중) “對道原傳錄而集成一編 有曰拈曰頌曰上堂曰唱曰話曰代曰別之分 而取振綱宣義之意 而命曰拈頌”
  - 10) 이종찬은 위의 책 29면에서 계송이 한시형식으로 융합된 이유를 인도문학의 문체가 원래 운문을 중시하였는데 동양문학의 한문이 원래 운  
율문학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变文이 講昌의 문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조명화, 「불교와 돈황의 강창문학」, 이회출판사, 2003, 45~49면에서는 “이러한 습합과정이 용이하였던 까닭으로 역사 이야기나 극 이야기처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사설과 노래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공연형식인 講唱이라는 형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문자로 기록하면 講하는 것은 산문이고 唱하는 것은 운문으로 불교 경전의 문체와 비슷한 것”이라고 계송의 발달과 습합과정을 밝혔다.
  - 11) 이상미, 「진각혜심의 계송문학」, 도서출판 박이정, 2007, 65면
  - 12) 이종찬은 앞의 논문에서 청매의 傷頌을 ‘頌古詩’라 제하여 살피고 있다. 頌古는 화두에 대하여 본령을 알리고자 시 형식으로 간결하게 음  
송하여 짤음을 가르친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혜심의 『禪門拈頌』을 짓고 또 계송을 남기기도 한 맥을 유지·전승하고 있는  
측면과 ‘拈古’와 ‘頌古’를 동시에 잡아 ‘拈頌詩’라고 명명하였음을 밝혀둔다.拈은 그 강요를 제기하여 알리는 것이며 頌은 그 뜻을 송하  
여 펴는 것으로 화두를 잡고 대중에게 제시하여 평을 더하기도 하여 자기의 견해를 보이는 형식으로拈頌라고도 한다.

아주 어린 새들은 무엇을 분별하거나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날아서 가는 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났다. 또 절름발이 토끼는 다니기가 쉽지 않지만 먹잇감을 보았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빠르게 달려 다른 장소로 떠나간다. 타고난 능력, 즉 자성은 四大의 부조화에 의해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본래 자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앞의 두 구는 도를 묻는데 ‘매우 좋은 산’이라고 대답한 경지에 대해 청매가 자신의 見處로 보여 준 비유이다. ‘매우 좋은 산’이라고 유관 자신의 경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었건만 산이라는 그 대상 혹은 단어에만 집착하니 도를 통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어린 새나 절름발이 토끼는 외관상 날 수 없을 것 같고 달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 自性에는 아무런 흡결이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식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산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의 외물인 산이 아니라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즉 산의 자성을 보라는 얘기라고 청매는 이해하고 있다.

아래 두 편의 시는 마조와 관련된 本則에 대하여 읊었다. 마조에게 어떤 승이 물기를 “스님은 어찌하여 곧 마음이 곧 佛이라 합니까?”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울음이 그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도 아니고 佛도 아니니라.”라고 한 본칙이다. 諸佛의 施設은 모두 사람과 때와 장소에 따라 설하는 것이 달라지는 ‘應病與藥’의 方便인 것이지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처방한 마조가 처방한 ‘即心即佛’에 대한 청매의 頌을 보자.

春江千里碧烟流 봄 강 천리에 푸른 안개 흐르고  
魚即深沈鴨即浮 고기는 깊이 빠져 있고 오리  
                            는 떠 있네  
西子一從都下過 서시가 도성으로부터 한번  
                            지나감에

千門傍見話難休 수많은 문 옆에서 구경하고  
                            이야기 그치지 않네  
「即心即佛」, 『青梅集』(『韓佛全』8, 131면 중)

마조가 ‘即心即佛’이라 한 것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처방이다. 울거나 소리를 내는 것(鳴)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3)</sup> 다시 말해 마음에 있는 불평인 괴로움을 없애고 안락을 얻기로 바라는 아이에게 주는 처방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괴로움 자체는 空이며 괴로워하는 내 마음이 곧 부처의 성품이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이 공하니 너의 성품도 공하고 공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도 공하다고 설한 것이다.

1·2구에서는 자연의 도리를 읊었다. 봄날 긴 강에 새벽 푸른 안개 피어오르는 것과 고기는 물 속에서 혜엄쳐 놀고 오리는 물 위를 유유히 떠 있는 것은 고기와 오리가 지닌 각자의 고유한 성질로 自性이며 佛性이다. 고기를 물 속에서 끌어올려 오리처럼 떠 있게 할 수 없고 오리를 고기처럼 깊은 물 속에 잠기게 할 수 없듯 우리가 품 받은 성품을 바꾸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불평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청매는 ‘鳶飛魚躍’으로 표현되는 天然之道의 도리를 끌어와 나타내었다. 3·4구는 西施의 고사를 인용하여 即心即佛이 곧 평상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西施는 전국시대 월나라의 사람으로 물고기도 그 아름다운 미모에 넋을 잃고 혜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게 만들었다는(侵魚) 미인이다. 이렇듯 고운 미인이 도성에 나타나면 모두 그 자태를 지켜보고 또 그 絶色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3·4구에서 노래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마음이며 自性이요, 佛性이라고 읊었다. ☺

13) 韓愈, 『送孟東野序』, 『古文眞寶大全』, 保景文化社, 2001, 134면 “大凡物不得其平則鳴”

## 공부는 전일하게 해라

미원장米元章은 “글씨를 배움에 있어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일에는 생각을 두지 않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였다. 또 옛날의 어느 거문고 명인도 “두 세 곡 정도를 전공해야만 비로소 오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다.

이런 말이 비록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에도 비유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한 곳에만 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 일이 하나로 돌아오지 않으며, 생각이 한결같고 뜻이 돋보하면 속히 삼매를 이룰 수 있다.

참선하는 이든 염불하는 이든 이 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



\* 운서주평, 「죽창수필」 山色 전문

\* 미원장米元章 : 송나라 때의 유명한 서예가인 미불米芾을 말한다. ‘원장’은 그의 자이다.

설현당에 부치는 편지

현공 / 사미니파



10월 4일, 1004의 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디 맑은 날! 도량도 그렇게 텅 빈 듯 했습니다. ‘참 바르게 사셨나보다! 여행가시는 날 이렇게 청명하다니…’ 혼자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로 출업여행 떠나시고, 큰방 공양자리는 아무리 넓게 앉아도 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몇일도 쓸쓸했는데, 이제 출업을 앞두고 계신다니, 상상만 해도 서운한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같은 치문이 또 있을까요? 50주년 총동문회를 기회로 하늘같은 화엄반스님들과 함께 자는 영광을 누렸으니까요. 온가족이 단칸방에서 지내는 것처럼 정겹고 오붓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스님들 이불이 하나씩 들어올 때부터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기대했었습니다. 온 대중이 한방에서 오밀조밀 있으니까 호랑이가 나와도 안무서울 것 같이 든든했지요. 늘 혼자 지내길 좋아하는 저였지만, 함께가 그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다시 느꼈네요. 그런데 하룻밤 이니까 즐거운 추억이지 여려날 이었더라면 또 얼마나 스님들 속을 썩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입학해서 지금껏 저희는 스님들 손에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발우공양할 때, 정랑과 정통에서, 도량 구석구석에서 늘 챙겨주시는 한마디한마디 잘 새기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과 사건, 사고 등등 이제는 대중생활의 묘미이자 외로울 틈이 없다 라고 여유도 가져봅니다만, 사실 날마다 새로운 실수를 연발하며 창의적인 말썽을 부리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고의도 제대로 못 입고 옷고름 매는 것도 서툴렀던 데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지만요. 발우를 제대로 짜지 못해서 늘 걱정을 들었었는데, 수저집이 매끄러워 그런 거라며 새 수저집을 챙겨주셨고, 장검사라고는 하지만 실상 무엇이 필요한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석차례하고 참회하면서는 분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조차 잊고 다닐 때면 먼저 합장하시며 부끄러운 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면 내년 치문반 맞이할 일이 다리 떨리게 두렵습니다. 말 안듣는 딸에게 너같은 딸 넣어봐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말이가 동생들과 집안일 돌보며 부모님까지 모시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위로는 어른 스님 모시고, 아래로는 저희들 습의시키시랴 공부도 바쁘실 텐데 말이죠… 새벽3시부터 경상 들이시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경상이 나오는 설현당을 보며 제 계으름을 자책해봅니다. 명태는 동해바다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 얼었다를 반복하며 감칠맛나는 황태로 거듭난다고 하네요. 운문사의 바람과 태양에 이제는 어엿한 비구니로 새로워지실 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 찬란하던 은행잎도 옷을 벗었습니다. 1년을 4계절로 나누듯, 학인시절을 나눈다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에고 우리 현공이가 화엄반이면 시님 걱정없을꺼~’ 저희 혼사스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출업반이신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비록 한 해 정도이지만 함께했던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먼훗날 언젠가 중물 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다 스님들 덕분입니다. ●

## 설현당

사집과  
일동

설현당…….

산처럼 떠억 버티고 있습니다.

말없이 함께하면서도 갈 수 없는 곳…….

그저 바라만 보면서 느낄 수만 있는 곳입니다.

그 속에 계신 스님들은 모두가 얼마나 멋지고 우러러볼수록 환희심이 났는지 모릅니다.

부족하여도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서 때로는 자비스러운 모습과 말씀으로 또 때로는 엄하신 경책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아가는 사집반입니다.

저희가 옮다고 고집하고 고집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일러 주심을 느낄 수 있음에 든든한 엄마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이제는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닮아 가야 하는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가 감히 스님들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걱정과 부끄러움이 흐르는 시간 속에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붉게 물든 낙엽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무들마다 벚을 잃은 쓸쓸함이 흡사 저희의 마음과 닮은 것은 아닐까 하여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저희만 두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떠나고 나신 그 빈자리에 서늘함이 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가슴속까지 스며들어 아프고 그리워집니다.

흘려 흘려가는 것이 인연이라 하셨지만 아직은 닦아가는 수행자이기에 좋은 것은 잡고 싶고, 싫은 것은 버리고 싶음이 남아 있어 역행하여 저희 욕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지 못하는 이가 있고 나와 멀리 있으면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있다고요. 떠나가시고 난 빈자리에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넘겨 놓고 가신 수많은 역사는 저희 가슴속에 그대로 살아, 그 모습 그대로 닮아 가면서 또 다른 설현당의 주인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 되어 그 어느 화상에서 다시 만날 날에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인사 나눌 수 있는 당당함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집반 을립니다. ●

# 오늘도 내일도 맑음

명우 / 사교과

윤문사에서의 4년 녹록지만은 않았을 아린 시간은 가고  
변화하는 건 오직 이 순간

초심의 여여함이 아직도 맑으십니까?

찬란하게 비추이는 눈부신 햇살의 설렙도

손끝을 아련히 스치는 바람결도

대지를 쓰다듬어 주던 빗방울의 촉촉함도

코끝 시린 새벽녘의 빛나던 별빛도

웃고 울고 징그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즈음

뒤돌아서면 그저 미소자을 수 있는 음

추억으로 남겠지요.

주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늘 함께해 주어서요

감사합니다

밝게 웃어 주시던 그 미소

따뜻한 위로

힘들었을 저에게 안겨준

그 소소한 감동의 순간들

그 순간 만난 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법연으로 만난 이 소중함

오늘도 내일도 맑음을 기약하며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환절기 감기이야기

김승필 / 건강관리협회 과장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입니다. 예전 TV광고에서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외치던 문구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난로 위에 끓인 차를 호-호- 불면서, 창밖 너머 하얀 눈 세상을 보는 여유를 가진 지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현실에선 콜록거리는 환자들 앞에서 TV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워지고 있고 감기 환자도 늘고 있는 지금 감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기침하시는 노인분들, 예방주사 놔달라고 오시는 건강하신 중장년층, 열나는 어린이… 그래서 환절기-겨울에 잘 걸리는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감기란 무엇인가요?

감기는 호흡기질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 중의 하나로서 가장 흔하게 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체내에 들어와 코, 목 등 상부호흡기계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 ● 감기(호흡기질환) 왜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차가워져서 걸린다기보다는 추위에 의한 인체 대사와 면역기능의 감소로 바이러스, 이물질, 병균 등의 체내침투가 쉬워지는데 몸의 방어기전인 체외배출은 원활하지 않아 체내번식 때문에 여러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겨울보다 환경변화에 의한 외부자극에 대한 몸의 대처가 급박하게 요구되면서 체내균형 부조화가 심한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침투과정을 보면,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되면 그 속의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다가 입이나 코로 흡입하게 되면서 체내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감기 환자와 가까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감기환자가 있으면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밀폐된 공간 역시 전파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감기전파의 경우도 많지만, 더욱 많고 중요한 것은 감기 환자의 호흡기분비물, 침 등이 묻어 있는 수건, 옷 등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 등을 만지거나 비볐을 때 감염이 잘 됩니다.

- 감기 증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1~3일 후부터 나타납니다. 상부 호흡기 계에 어느 정도 침투했는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혼한 증상으로 재채기, 코막힘, 콧물, 기침, 가래, 미열,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이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미열 정도이지만 소아에서는 좀더 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서 합병증이 진행되어 다양한 증상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감기 진단은 피검사, X-Ray 이런 것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병력조사와 임상증상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확 인하려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의 투자에 비해 비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증상 자체가 위낙 혼하고 다양하여 비슷한 증상을 가진 좀더 위중하고 특별한 병들을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비슷한 증상의 폐암, 폐렴, 폐결핵, 천식, 독감 등 위중한 병을 단순 감기라고 넘기면 안 되겠지요?



- 감기와 위중한 병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1. 10일이 지나도 증상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2. 39도 이상의 발열
3. 식은땀 오한 등이 동반되는 경우
4. 심한 피로감
5. 배가 아프거나 토하는 경우
6. 귀의 통증

## 7. 심한 두통

## 8. 호흡곤란

※ 이런 경우는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 ● 감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치료는 없고 보통 순수감기라면 일정경과를 지난 후 자연소멸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기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의 피로움을 더는 목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여 체외배출을 촉진합니다.

###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감기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어 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감기바이러스를 없애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용품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깨끗한 위생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예로 2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백발의 어르신 댁에 놀러 갔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라 자주 들르곤 했었는데 TV를 보면서 콜록거리고 계셨습니다. 따로 특이 증상과 열이 안 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기침만 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독감 예방접종도 하셔서(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 가능) 걱정 없이 외부활동도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며칠 사이 수척해지고 숨쉬는 데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 작년과는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청진기도 없이 가슴에 귀를 대 보았습니다. 살짝 식은땀이 나고 있어서 당장 내일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흥부 사진을 찍었더니 방사선과 의사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양쪽 가슴 전체가 눈이 내리듯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입원 후 치료를 받아 지금은 퇴원 후 잘 계십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이라도 시간을 끌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왔었을 겁니다. 병명은 폐렴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폐렴은 고열이 나든지 본인이 아주 힘들어하지만 어르신 경우에는 열도 없고 약간의 피로감과 기침만 있어서 진단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다 다르므로 병을 접할 때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먼저 병을 결정하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윗글의 증상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시어 큰 병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나세요~ ^.^ ♡



김승필 님

고신의대 졸업 / 이화의료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

한솔병원 전임의 / 이화의료원 외래조교수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위장내시경전문의 / 대한유방암학회 유방암전문의

대장항문병학회 대장항문전문의 / 일산기독병원 내시경센터장

부산 서동제일병원장 /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내시경실 과장

## 복조리 사다 거세요

신현득 / 아동문학가



복조리가 한 해 꼬박,  
벽에만 걸려 있으려 하진 않죠.  
복 주는 게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웬 강아지냐?”  
“왈왈왈… 나는 복조리예요.  
안방 바깥벽에 걸려 있었죠.”  
“복조리가 강아지 됐나?”  
“그럼요, 복강아지 됐죠. 윈윈윈.”  
  
“병아리 한 마리가 늘었네.”  
“나는 복조리예요.”  
“복조리가 병아리 됐나?”  
“그럼요, 복병아리죠. 빠---약!”

“아기 돼지 한 마리 늘었네.”  
“꿀꿀꿀… 나도 복조리예요.”  
“복조리가 복돼지 됐군.”  
“그럼요, 그럼요, 꿀꿀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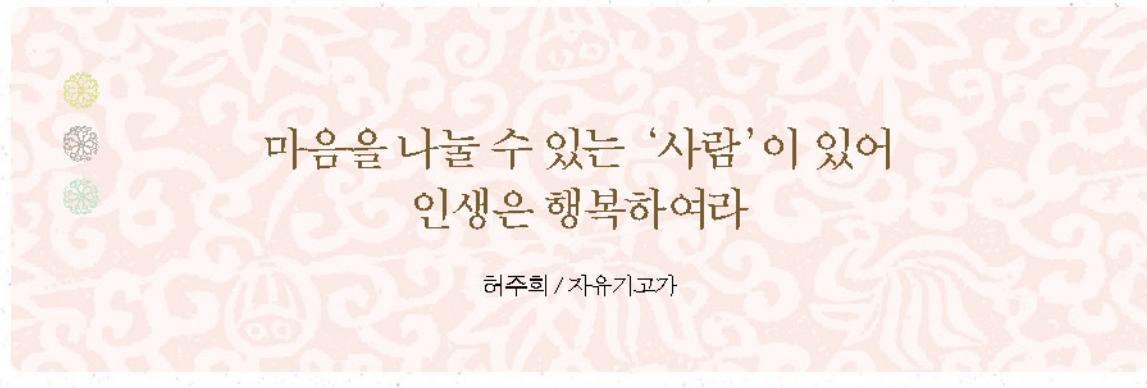
“복조리는 하난데  
이번엔 복송아지네.”  
“움매!  
복조리 하나가 몸을 나눴죠.”

그러니, 복조리  
사다 거세요! ●



신현득 님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박사  
1994 방정환문학상 / 2003 운동주문학상  
1990~2004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2002~200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2004. 5~2006. 1 제3대 새싹회 이사장



##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인생은 행복하여라

허주희 / 자유기고가

겨울의 길목에 들어서니 ‘첫눈’이 기다려진다. 소녀 시절이나 마흔 줄에 접어든 지금이나, 나는 이맘 때면 설레는 마음으로 ‘첫눈’을 기다린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감성이 메말라지는 게 두려워서일까. 나는 아직도 꿈꾸는 소녀처럼 낭만과 감성을 간직하고 싶다.

내가 유독 ‘감성’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은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10여 년간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다채로운 ‘세상 경험’을 해왔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유명 인사나 인기 연예인들도 있고 일터에서 뚝뚝히 일하는 근로자,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소시민들도 있다. 낯선 산골의 어두운 밤길에서 버스 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렸을 때 정류장까지 태워준 이름 모를 아저씨 등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잘살든 못살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관조하며 살아가느냐이다. 나는 저 명인사나 인기 연예인을 만날 때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특히 사회 관심 밖에 있는 이들을 만날 때 가슴에 더 큰 울림과 깨달음을 얻는다. 그들에게 더 많이 배우며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가슴 뜨거운 감동을 받는다.

어느 해 추운 겨울, 취재를 위해 경기도의 한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엄마가 오기만 기다리는 어린 형제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좁은 방 안에서 밤늦도록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만을 기다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티 없이 맑았다. 내가 이들을 위해 하는 일은, 그저 잡지에 글을 쓰는 것뿐이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게 자라나기를, 우리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하는 소망을 품었다.

8년 전쯤, 한 취재지에서 나는 ‘연로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그곳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수목원이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스물세 살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직접 가꾸고 만든 정원이었다. 활동영역이 자유롭지 못한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자연과 벗하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도록 만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시도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었지요. 채를 어떻게 하나, 나중에 나죽은 다음에도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제 자유롭게 밖으로 다니지 못하고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수목원을 만들게 된 계기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토록 애틋한 것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 40대 중년이 된 아들은 구족화가가 되었다. 수목원 내의 갤러리에서 나무와 숲 등 자연 풍경을 섬세하게 그린, 구족화가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때로는 '말(言)'보다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담소를 나눌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한다.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험을 적잖게 했다. 말이 많으면 어느 순간 내 자랑을 늘어놓게 되고 또 누군가의 흥을 보거나 내 멋대로 남을 평가하는 등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쓸데없이 내뱉은 말이, 결국 내 인격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와 담소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적절히 호응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를 갖고 자신의 속내를 허심坦회하게 털어 놓을 것이다. 이렇듯 내가 먼저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게 된다. 내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울 겨울, 첫눈이 온다면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에게 전화를 걸겠다. 아껴두었던 외투를 입고 하얀 눈을 맞으며 나란히 오솔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창 넓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모파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다. ●



허주희 님은 지난 10여 년간 사보 및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인터뷰하고, 여행지를 취재하는 등 다양한 삶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감성이 묻어나는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시대 최고의 리더 16명이 들려주는 나의 삶, 나의 아침」(황금물고기, 2005년), 「자유기고가로 먹고 살기」(윗북, 2011년), 「떠나라, 청춘아」(체온365, 2011년) 등이 있다.

블로그 : <http://cutyheo.blog.me> (꿈을 펼치는 자유기고가 & 여행 작가)



## 수행자와 사찰음식

적문 /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얼마 전 쪼꼬가무시에 걸려 된통 홍역을 치렀다  
40℃, 40도를 육박하는 고열 그리고 오한, 전신통증, 편  
두통, 전신 무기력증…등 참으로(?) 대단한 친구와 근 보름  
을 함께하였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나에게 실로 오랜만에 나의 현존재  
現存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21년 전, 1992  
년 10월 27일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천명하였다.

“본 연구소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전통사찰음식문화를  
발굴 계승하여 현대의 사부대중에게 적합한 수행음식을 제  
공하며, 사찰음식 문화의 현대화, 그리고 사회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확대 보급하여 근검절약의 미풍을  
조성한다.”

돌이켜보면, 10월 27일은 80년 신군부 독재가 군화발로  
법당을 짓밟은 치욕적인 날이었다.

굳이 이날을 연구소 출범일로 잡은 것은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법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수행자  
들의 피 눈물의 절규였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이  
같은 수치스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우선 도식적이고  
통상적인 수행자의 길은 접기로 하였다.

그래서 좀더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수행자, 나  
아가 민중과 부대끼며 빨고여락拔苦與樂하는 수행자, 스



스로는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수행자의 삶을 꿈꾸었다.

그래서 작년 8월 14일 KBS 1TV 인간극장 4부작 “스님 칼을 들다”의 제목처럼 비구승으로서 앞치마를 두르고 삼십여 년을 ‘사찰음식 연구와 보급’을 수행의 지표로 삼아 살아왔다.

그러나 연구소 출범 당시 천명하였던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했던 결심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량없다. 산사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행자 일과 중 발우공양 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상이 깃들어 있다.

첫째 평등사상, 둘째 청결사상, 셋째 절약사상, 넷째 승가공동체사상, 다섯째 복덕공양사상이다. 나는 여기서 복덕사상에 주목한다.

부처님의 정언명령定言命敎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불교 수행자의 실천강령 중에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 있다. 수행자가 중생을 교화敎化하는데 이왕이면 복덕을 갖추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는 것이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하고, 칠재시七財施 중 방긋 웃는 미소마저도 인색한, 아니 노보살님들이 정성으로 합장하는데 건성으로 화답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도 침묵하는, 그런 수행자가 아닌 스스로가 복과 덕을 장엄하게 길러서 이를 나누어주는 수행자가 되기를 진정 다짐하면서 사찰음식조리 철학 중에서 삼덕三德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필자는 21년 동안 한결같이 사찰음식을 아래와 같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였다.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다.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산중스님들이 배우는 치문에 장로자각 선사의 분명한 가르침이 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육미육정六味不精하고 삼덕三德이 불급不給이면 비전좌소이봉중야非典座所以奉衆也오. (緇門警訓 : 長廬慈覺贊禪師 龜鏡文)

대중스님들의 음식조리를 담당하는 전좌 소임자는 먼저 六味(쓴맛(苦), 단맛(甘), 짠맛(鹹), 싱거운 맛(淡), 신맛(酸), 매운 맛(辛))를 정결精潔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三德을 갖추어야 하는데 삼덕은 첫째 청정清淨의 조리 원칙인데, 인공 조미료나 방부제가 깃들어 있지 않은 청정한 채소로 만든 맛깔스런 맛





을 내는 깨끗함을 말함이다. 그리고 육식은 물론이고 젓갈이나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등 냄새나는 오신채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신채五辛菜 부분은 『농엄경』 제8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중생이 삼매를 뒤울 때에는 마땅히 세간의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끊어야 하니니, 이 다섯 가지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날 것으로 먹으면 탐貪, 진瞋, 치癡 삼독심三毒心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是諸衆生 求三摩地 當斷世間五種辛菜 是五種辛 熟食發婬 生啖增恚).”

둘째, 유연柔軟의 조리원칙인데, 수행정진에 열중하는 스님들의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고 담백하게 조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원禪院에서는 조식朝食으로 죽粥공양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연의 조리원칙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출가 수행자는 평생 독신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주만물의 이치인 음양오행 및 4계절을 염두에 두고 조리하여 섭생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절에서 무쇠 솥에 밥을 짓는데 쌀은 흙에서 나오므로 토기土氣, 밥을 짓는 가마솥은 쇠로 만들어졌으니 금기金氣, 밥물은 수기水氣, 쌀을 익히는 불은 화기火氣, 불을 지피는 나무는 목기木氣에 해당한다.

이 같은 흰쌀밥에 목木인 봄에는 푸른색 나물을 무침 때도 식초를 넣어 신맛이 나도록 하고 화火인 여름에는 붉은색을 택하여 쓴맛이 나도록 하고 금금인 가을에는 흰색으로 매운맛을 나도록 하며 수水인 겨울에는 검은색으로 짠맛이 나도록 요리해야 한다.

아울러 보기補氣, 보혈補血, 보양補陽, 보음補陰식품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식에도 상생相生과 상극相剋궁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찰에서 많이 사용하는 두부와 미역, 다시마의 관계를 살펴보자.

두부에는 사포닌 성분이 다양 함유되어 있어 지나치게 섭취하면 요오드가 체외로 빠져 나가는데, 요오드가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이 마비되어 빈혈, 저혈압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함께 섭취하면 참으로 절묘한 상생의 음식궁합이 되는 것이다.(사찰 요리로는 두부 다시마 미역말이, 두부 다시마탕 등이 있다.)

반면에, 오이와 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이를 칼질하여 오이채를 만들 때 여기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의 비타민C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법如法의 조리원칙인데, 과연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

도원道元 선사는 『전좌교훈典座敎訓』에서 불법승 삼보三寶에 올리는 음식물을 직접 조리한다는 사실에 순수하고 기쁜 마음(喜心)을 지녀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듯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요리를 해야 하는 어버이의 마음(老心)을 갖추어야 하며, 세 번째는 큰 산과 큰 바다와 같이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쇄선을 다하는 넓은 마음(大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날이 밝거나 해가 져도 재료는 공양주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재료 위에서 언제나 재료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며,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좌교훈』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 것과 예전의 무쇠 솥에 밥하는 것 중에 어느 조리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여법如法하게 조리하는 것일까? 좀더 살펴보자.

지금은 정제된 쌀을 쌀통에서 몇 인분의 단추를 양에 맞추어 누르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쌀을 물에 휘휘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고, 표시되어진 분량의 위치까지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덮고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정해진 시간까지 틀림없이 밥이 된다. 정말 너무나 간편하다. 그러나 예전 무쇠 솥으로 밥을 짓던 때는 화력조절은 물론이거니와 물 조절이 큰일이었다. 솥 한쪽에 눈금 따위가 없기 때문에 쌀의 질이나 건조 상태에, 어떤 때는 분량에 따라서 직감적으로 물의 양을 결정해야만 했다. 소위 눈대중으로 밥을 짓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자前者와 후자後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차이가 생겨난다. 즉,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조리방법에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을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나아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요즈음 현대인들이 Fast food를 저버리고 Slow food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적문 스님

1992~(현)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경기도 평택) 주지

## 오직 갈 뿐

효주 / 사미니파

정신 못 차리던 봄과 땀띠 나게 치열하던 여름, 밥상 차리느라 바쁘던 가을을 지나 운문사의 첫눈을 맞이하고 있는 치문반 효주입니다.

여러분은 산행을 좋아하십니까?

저희 절 뒤에는 화엄벌이라는 멋진 능선이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에서 건너온 1천명의 대중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였던 곳으로 봄에는 철쭉의 향연이, 가을에는 광활한 억새초원이 등산길의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화엄벌을 오르면서 우리 수행의 길도 화엄벌을 오르는 이 산행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오늘 법문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길은 직접 한걸음 한걸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앉아서 멋진 사진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는 시대이고 굳이 힘든 산행을 자처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걸음 한걸음 산길을 오르면서 그 순간 제가 느끼던 감동은 그 순간 그곳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신 길을 우리가 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직접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남의 보물을 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연히 책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부처님은 일찍이 인생에 대해 품었던 나와 같은 고민을 직접 수행을 통해 해답을 얻으셨고 진리를 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여 깨달기만 하면 무명에서 벗어나 진리를 바로 보고 윤희고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의 어느 때보다도 고된 노동과 바쁜 일과, 단어부터 다시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아름다운 산의 품 안에서 덕 높으신 어

론스님들의 생활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한해 한해 자라는 아이처럼 행복했습니다. 저희 주지스님께서도 수행은 먼 곳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니 지금 그 자리에서 한걸음 한걸음 애쓰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그곳에 가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백리길을 갈 때 한걸음을 걸으면 갈 길이 한걸음 줄어들지만 가지 않고 길 가운데서 있기 만하면 설사 고향소식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한들 집에는 끝내 도착하지 못하리니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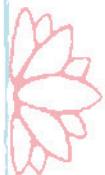
둘째 정상이라는 나침반을 항상 마음에 두고 끈기 있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 않은 길일수록 길은 험하고 어렵기 쉬우며 힘듭니다. 그러나 올라가기 힘든 순간을 만나도 하산하지 말고 일단은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길이 보이고 힘든 순간을 이기고 나면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운문사 대중생활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넓은 도량을 초를 다투며 뛰어다녀야 하는 디나리함과 비구니 사관생도의 요람이란 명성답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일사불란함을 요구하는 행동과 무엇 하나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인수인계…… 성격상 나서기 싫어하고 일머리가 없는 저에게 백씨 측이라는 이유로 총책임을 맡게 되는 소임도 여간 부담스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들어오는 상반스님들의 걱정은 저를 더 긴장하게 했고 나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얼굴로 인상파가 되어 돌아다닐 때 한 상반스님이 “효주 스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수행하러 왔는데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항상 경계하며 주위의 산을 마음조차 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운문사에 경을 공부하고 대중생활을 익히러 왔다. 어떤 순간에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며 화두 공부할 연습을 해야 한다.’

이후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을철 종두소임을 살면서는 도반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상반스님과 제 옆에 있는 28인의 선지식을 배우며 다만 이 순간에 애쓰고 애쓰며 오직 잘 뿐입니다. 끝으로 법구경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제으론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잡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 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



# 한국 경제·사회복지의 21세기 현상 ②

혜명 / 사립과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1. 한국 사회복지의 국제적 위치
2. 한국 사회복지의 상황과 특징
3.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 III. 결 론

## 3.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 1) 복지정책 개혁의 필요성 (※ 지난호 참조)

### 2) 사회복지의 기본원칙과 체제 구축 방안

#### (1)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사회복지 발전의 기본방향 정립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수행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원칙의 정립은 사회보장 기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도를 확립하는 기본 전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 (2) 사회보장의 구성

국가책임의 사회보장 구성 영역은 '기초생활 보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보상은 기업과 개인에 의한 민간 부문의 책임과 자율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보완과 보충적 체제를 공공과 민간이 조화할 수 있는 혼합복지체제로 구축한다. 즉, 사회보장 체제의 국가는 비용집약적인 사회수당 형태를 지향하고, 사회보험에 의한 1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에 의한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험은 빈곤에 대한 예방정책에 중심을 두고 공공부조는 빈곤추락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정책 수단으로 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 (3) 사회보험방식

적용대상자가 가입 기간 동안 본인 스스로 재정을 부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제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순수한 국고보조에 의한 보장보다 재정부담이 적고, 저소득 계층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기여하도록 하여 자립적 성격을 높임으로써 낙인효과(stigma)도 낮아진다는 장점을 지닌다. 전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 관건이다.

#### (4) 사회안전망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조과 기능

사회보험은 대상자가 전 국민이고 재정 비중이 가장 높으며, 향후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체계 구성을 요소로서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으로 우선적으로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장애, 사망, 실업, 장기용암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빈곤에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 (5)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의한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빈곤으로 추락하는 계층에 대하여 예방, 보호 그리고 탈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체계. 2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제외되었으나 2차 안전망 자체 내에서 빈곤추락 예방기능과 빈계재충에 대한 보호기능,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6) 사회수당제도

사회수당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유사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집약적 성격을 띤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에 대하여 정액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공부조 성격보다는 사회 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3) 세부 제도 영역별 개혁방안

사회복지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 제도영역은 1차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이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각 취약계층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개별 규정이다.

#### (1) 공적연금체계

#### • 국민연금의 기본 보장 기능 확립

2007년 개혁 후 재정안정에 일부 도움이 되었고 적자 발생시점이나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약 13년이 미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었으며, 연금수준을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 조건을 확보하고도 1인당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수급자의 연금 수준이 공공부조 수급자보다 낮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사회에 만연될 우려가 높다. 이것은 국민연금 존립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 •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국민연금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의 시기가 다소 늦추어졌다. 원인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 다층보장체계의 퇴직연금제도 정립

퇴직연금은 다층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기본보장 중심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노후 보장에 효과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연금으로서 공적연금과의 조화를 통한 노후 보장의 역할 수행적 관점과 퇴직금 자체 기능의 한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매우 타당한 정책 결정이다.

퇴직금 제도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회보장의 여유분으로 다양한 형태를 조화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할 수 있다. 현행제도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적 의미

를 상실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역 효과를 우려하게 만든다.

해결방안으로 노후보장에 초점을 두어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책임지는 투자가 아닌 전문가인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기금운영체제로 전환, 이에 대한 수익률은 국가가 최저 한도를 고시해야 한다.

- 공무원등 특수직연금 개혁의 필요성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군인연금은 지속적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실패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0년대 기금고갈로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발생하는 적자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도 1995년 적자누적으로 기금고갈이 발생한 국가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적자에 대해 전액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기초로 몇 차례 개선이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연금과 더욱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적자수준이 높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공무원 연금 적자가 국민경제 규모에서 볼 때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2) 건강보험제도

- 급속한 재정 지출 증가 원인

첫째, 노인 진료비의 증가이다.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1년 17.7%에서 2009년 31.7%로 증가하였다.

둘째,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

용이다. 현재 한국의 수가제는 과다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위당 의료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을 갖는 한계를 보인다. 의료수가제란 환산지수방식으로 각 의료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대한 지불액수를 정하는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수가방식으로 의료제공 기관에 대한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셋째, 신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의료공급체계의 성격은 고가의료장비를 통하여 환자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수요를 유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료장비가 남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약제비와 관련된 것으로 약제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5년도 약제비현황을 보면 전체 보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3%로 OECD 평균인 17.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도 있으나 의약품 오남용의 관습적 태도에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전체적인 재정관리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환산지수방식은 실제 전체 진료비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 재정 수입 조달의 한계와 문제점

재정수입 측면에의 문제점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확보와 부담의 형평성 확보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보험료 인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대표적

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임금소득으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유도하는 문제, 재정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단지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 등이다.

#### • 건강보험의 개선 과제

지불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방식과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 및 합리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포함한다. 지불체계는 의료공급자의 의료공급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자의 입장과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선택한 방안이 질병당 비용을 충족해서 지불하는 포괄 수가제로 이것은 건강보험의 지불방식으로 일 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상호이해를 넓히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 내에서 의료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와 함께 정확한 의료시장 정보의 확보를 가리킨다.

한국 건강보험의 미래는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건전성이 특히 강조된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은 무엇보다 산재보험의 세 가지 이론적 특징을 제도에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협약의 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으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 재판을 통

해 민사상의 배상을 포기하는 반면,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소사회비용의 이론(least social cost theory)으로 산재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직업위험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는 체계는 이미 지나갔으며 모든 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에 따르는 재해에 대하여 소득 손실과 의료비용, 그리고 재활사업을 확고히 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산재의 ‘예방-재활-보장’ 메커니즘 구축

산재보험이 단순히 배상책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산재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라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이다.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예방의 범위는 광의의 범위로 예방과 긴급응급체계, 재활을 포함한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적극적 확대
 

동아시아 시대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에 크게 변화가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양분화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재보험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모든 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산재 위험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에서 산재로 털락되는 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방·재활·보장’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고 하겠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 수급자 범위의 협소성에 의한 사회보험 보편성 확보.
  - 서비스 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징벌적 대응으로 불신 심화.
  - 본인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포기로 근본 목적이 위배되는 현상 발생.
  -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으로 종합적인 문제를 양산
  - 제도 투명성 및 건전성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 부재 사태 발생.
  - 복합시설등 합리적 형태의 시설 형성 미진.
  - 요양 수급자에 대한 의료단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갈등.
  - 지역 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

#### (4) 고용보험

- 고용보험 사업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성격
 

고용보험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이 실업발생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업의 실적에 적합한 고용안정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 모성보호사업의 역차별성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하여 가족 등을 대신해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에게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노인 및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한다.

- 사회보험적 기능확보를 위한 노력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최소 10% 수준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급 외 판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임의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 관리·운영의 생산적 정상화
 

허위 부당청구의 시스템적 사전 차단 계획 및 재가서비스 자동 청구 시스템 구축 제안, 불법부당 기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급여비용 청구 심사 종합조회 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평가를 통한 결과에 따라 차등 수가, 행정처분에 반영, 소비자에게 공표, 추후 인증원과 연계 평가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을 전제로 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태도는 오히려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전가시키거나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등의 역효과를 유발.
- 기타

- 재가서비스에서 본인부담제도를 폐지.
- 제도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서비스의 현실화와 공급 및 수요 체제의 안정적 정착 노력

#### (6) 취약계층 및 복지서비스

신빈곤 위협계층에 대한 새로운 체제로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일환으로 IMF 및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빈곤 위협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실직자의 빈곤추락 위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보호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통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빈곤추락 위협계층에 대한 추가적 대응 전략과 실업자에 대한 단계적 보장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 인프라의 확충 및 조정이 근본적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대두,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확보이며 종합적 관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제도 간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 등이다.

### III. 결 론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이 반복되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은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환경 변화였기 때문에 대응도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갈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는 그 자체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단순한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회·경제 환경변화는 그 변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축소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변화에 국가가 기존의 체제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 간 경쟁에 나서는 국민에게 어떠한 사회적 위협이 닥치더라도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발전하도록 하는 공영의 기본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2009, 「2007년도 한국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2002,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명, 200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 복지
- 남찬섭, 2002, 「한국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에스蛩엔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김연명 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서울, 인간과 복지
- 보건복지부, 2001,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서울.
- 유경준·심상달 편, 2004,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해경, 1994,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심포지움 발표논문
- 정경배 외, 1998,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대토론회, 국정개혁 공동모임(1998. 10. 8.)
- 한진희, 2003,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성균·윤영미, 2007,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윤윤규 외,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강원생활

도율 / 대교과

치문반 때는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첨벙거리고  
사집반 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밭을 누비며  
사교반 때는 아파도 대중스님들 공양은  
챙겨드리고 아파야 하고  
화엄반이 되어보니 여기저기 풀린 나사를  
조이는 것같이 기술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치문반 때는 사집반 스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반이 되어보니 아~ 하다가  
사교반 스님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반이 되어보니 또 아~ 하다가  
화엄반 스님이 이해가 안 가더니  
이제는 ‘후배 스님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듈다.  
그러나 서둘자는 않는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저 시간이 지나감에 더 넓은 포용력이  
생길 것이다.  
자연의 베풂으로 명을 잊고  
대중스님들의 공덕으로 수행을 삼으며  
시주자의 은혜로 원력을 삼는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자신의 값진 보석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인연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

## 인도, 부처님의 나라

현우 / 대교파

온갖 공덕의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세계를 설하신 화엄경을 배우는 강원 4년차 화엄반. 내게 강원 3년은 모래 사막을 한결음 한결음 걷는 듯한 시간이었다. 물론 가끔 우물도 만나고 양치기 소녀도 만났지만, 제대로 된 오아시스는 역시 화엄반이 된 이후의 시간이었다. 그 오아시스에 편 화려한 꽃이 바로 인도 성지순례 졸업 여행!

초전법륜을 하신 사르나트, 입멸하신 구시나가라, 성도하신 보드가야, 탄생하신 룸비니를 거치는 경로에는 유마경을 설하신 바라나시와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는 라자기르와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도리천에서 내려오신 상카시 아까지 넣으면 부처님 8대 성지가 될 터였다.

부처님 성지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폐허였다. 아득한 기억을 담고 우리의 신심으로 가득한 상상력 속에서나 그 찬란했던 시절의 광휘를 내뿜는다. 반쯤만 남아 겨우 건물로 보이는 벽돌 무더기와 얼굴이 깨져나간 불상에도 우린 찬탄했다. 찬탄할 수밖에 없었다. 거긴 우리 부처님께서 이천 오백년 전에 머무셨던 곳이고, 부처님을 친근히 기억 하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리워 더운 땀 흘려가며 그 기억을 새기던 곳이니까.

인도의 햇빛은 무척이나 눈부셨고, 무척이나 더웠다. 속옷 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느끼며, 무너진 벽돌 사이를 거닐며, 거기 남은 옛 기억을 나 역시 그리워했다. 유적의 빈 공간에 바람이 불어 지나갔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지나갔다. 허허로웠다.

어느 불교학자가 말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은 그것이 불교라서라고, 그것이 불교의 위대한 점이라고. 잘못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 전에는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불교의 힌두화로 인한 정체성 상실이라든가,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한 세력 약화라고 들었다. 그랬겠다 싶었다. 네팔 스웨루나트 사원에는 힌두 신상처럼 빨간 염료를 뒤집어쓴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나 불교는 모든 만물의 생로병사와 성주괴공을 말한다. 세간에서 형상으로 존재하는 불교는 역시 성주괴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역사의 영고성쇠를 타 넘으며 굳건하게 버티는 모종교는 여전히 탱탱한 피부와 미모를 과시하는 나이 든 유명 연예인을 보듯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성지에 흔적으로만 남은 불교가 내겐 아름답고 고마웠다.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동아시아로 넘어와 다시 꽂피어났다. 본질로서의 불교는 영원불멸, 그러나 그 영원한 불교란 어떤 것일까. 아직 유有에 걸려 영원을 보지 못하는 초심자로서는 어렵기만 하다.

어느 길이었나, 다음 유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망연히 창 밖을 보고 있었다. 간간이 벗발이 훌날렸다. 논과 도로의 경계가 애매하고, 그 애매함 위에 벗물이 고여 작은 습지가 되었다. 거기에 작고 허얀 꽃이 피어 있었다. 연꽃이었다. 연꽃은 연꽃인데, 금방 알 아보기 힘들 만큼, 한국에서 보던 크고 우아한 연꽃과 달랐다. 피어 있는 배경부터 달랐으니까. 전망 좋은 넓직한 연못이 아니라, 언제 말라버릴지 모를 더럽고 괴괴한 웅덩이라니! 보며 감탄하는 이도 지나가는 여행객뿐. 한 순간 큰 연꽃이 보이기에 야, 저거 봐라 하며 찬탄했는데, 아차, 벼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였다.

연꽃이 연꽃이 아닌 이곳, 쓰레기와 뭉구는 연꽃이라. 그래도 불교에 비유된 연꽃은 이 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정결한 법당과 절마당의 불교에만 익숙한 내게는 새로운 자각이었고, “더러운 연못에서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런 비유가 몸으로 체험되는 순간이었다.

저 꽃은 아마 부처님 시절에도 저렇게 피었을 것이다. 지금도 저렇게 피고, 미래에도 저렇게 필 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유적과는 다르게… 찾고 있던 영원의 그림자를 얼핏 스쳐본 느낌이었다. 그런 애매한 느낌만이 슬쩍 지나간 향기처럼 남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결한 절집의 연꽃도 연꽃이고 쓰레기와 뭉구는 연꽃도 연꽃이다. 그러니 여행을 정리하는, 또한 강원 4년을 정리하는 나의 발원은 이로써 충분할 것이다.

“정결함에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 하나 피우게 하소서.”

## 관세음 보살님

유진 / 사집파

관세음 보살님!!!

당신을 불러 봅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당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성내는 눈빛이 보입니다.

눈물짓는 얼굴이 보입니다.

아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재미나는 놀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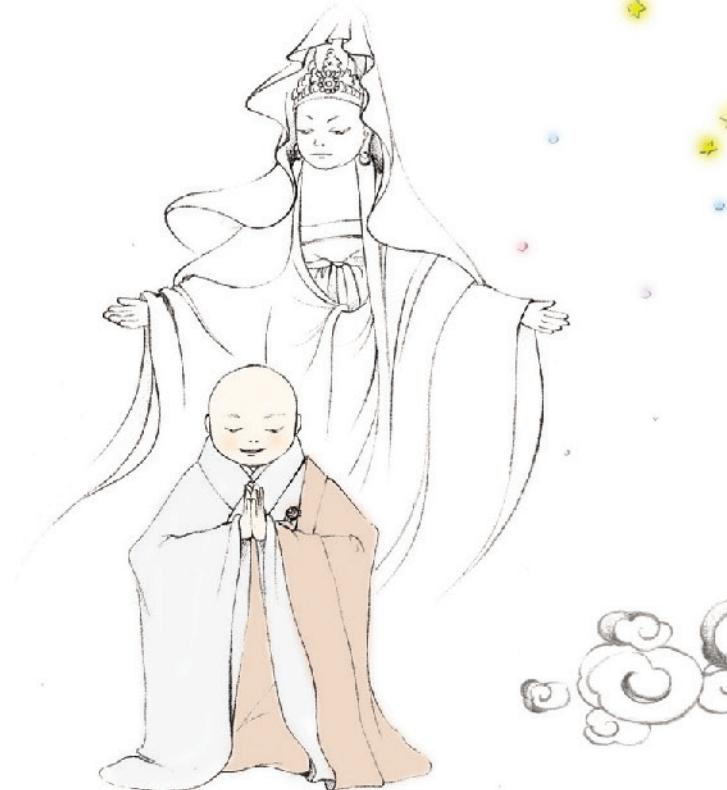
빛나는 옷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음성이, 손길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얼마나 찾아야

당신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를 찾아 나섭니다.  
나무와 새가 되어 봅니다.  
사자와 코끼리가 되어 봅니다.

문둥병자가 되어 봅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봅니다.  
장사꾼이 되고 농부가 되어 봅니다.  
황제가 되고 거지가 되어 봅니다.

거듭거듭 나고 죽음을 몇 생  
비추어지는 거울 하나에  
오고가는 모든 이를 바라보는  
깊고 따스한 눈빛이 있습니다.  
밝게 활짝 편 미소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포근한 가슴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추어진 그림자  
그 아름다움이여!  
당신은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벗이었습니다. ☺

## 여름을 되돌아보며 짧은 이야기

무진 / 사미니파

겨울, 시린 햇살을 담고 운문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호거산 자락도 깊은 겨울잠에 빠진 듯 몸을 한껏 웅크려 운문사 도량을 품고 있습니다.

선정에 든 납자의 안온한 숨결이 이어할까요. 청명한 공기가 폐부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희미하게, 호흡의 끝에서 고드름의 맛이 나는 듯합니다.

지금은 이렇듯 적막 속에서 자맥질하듯 숨쉬는 운문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철까지만 하더라도 온 대중스님들이 도량 내를 종종걸음으로 바삐 다니는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7월 중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 간다 간다 뽕! 선정 삼매로

올해 여름불교학교의 주제는 육바라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모인 선정禪定반의 부담임을 맡았습니다. ‘걱정 없이 편한 마음 선정반’이라는 표어가 탄생하게 됐지요.

불교학교를 준비하며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육바라밀의 효과적인 전달이었습니다. 일체가 고 苦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도 그 나름의 번뇌와 고뇌는 존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학교 성적, 다이어트, 친구들 간의 문제까지……. ‘고민’이라는 이름을 입은 번뇌는 어디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여름불교학교의 첫 날이 밝아 회성당 교실에 와글와글 모인 서른여섯 명의 선정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설익은 미숙함만 잔뜩 내비친 서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어두운 그림자에 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 스님, 산다는 게 다 걱정 고민 아닙니까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린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 많은 걱정들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을 선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육바라밀’과 ‘선정’에 대한 설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의 남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 산다는 게 다 걱정이고 고민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은 걱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스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전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게 보살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 그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돼요.”

“그때 또 죽으면 되지요, 뭐.”

다음 스케줄이 있었기에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이들의 목소리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아이들, 과학적 증거만을 논리로 받아들이는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대화가 화두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가슴 저미는 순간을 자주 접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탓에 사랑이 고픈 아이들 또한 제겐 화두였습니다. 스님이 손을 잡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 가득 함박 미소를 짓는 아이를 보며, 힘주어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모든 무명의 근원은 갈애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과 열망의 이면은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중오와 절망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삼 쌍둥이처럼 등을 맞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자라며 차츰 알아가겠지요. 어찌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욕망의 변두리를 배회하던 어느 날, 쌔늘하게 식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 출가자의 덕목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삭발염의를 하기 전, 은사스님께서는 남은 평생 동안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제게 있어 그 가르침을 견고하게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단단한 얼음결정처럼 여물어가는 겨울이 지나 사집반이 되면 첫 상좌를 맞게 됩니다. 경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 ‘대자원’의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설레기 앞서 남은 삼 년 동안 그 아이를 잘 끌어줄 수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회향처는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보리를 얻는 일뿐, 해태심을 경계하며 부지런히 정진해야겠지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화합하라. 오늘도 그 말씀을 새기며 방일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유산이 남아 있는 군산시  
그곳에는 특별한 사찰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동국사이다.

42



제30회 조계종  
대원불교조계종

동국사

16

## 근대문화의 거리, 군산

- 군산 월명산 동국사를 다녀와서 -

원일 / 사집파

고속버스를 타고 세 시간 넘게 달려와 만난 군산, 산뜻한 공기와 정겨운 고향 냄새가 좋은 첫인상을 건넨다. 도심과는 달리 낯설지만, 도란도란 어우러진 정다운 분위기, 그 속에 여유롭게 자리 잡은 집들의 부드러운 풍경, 그 길을 걸어 어느새 동국사에 들어섰다.

1910년~1945년 일본제국 지배하에 밧줄을 타듯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 바로 그 시절 그때를 회상케 하는 역사의 흔적이 숨쉬는 곳이다.

동국사의 본래 이름은 금강선사錦江禪寺이다. 1910년 경술국치(韓日合邦) 1년 전인 1909년 일본 승려 우찌다 복간 스님에 의해 포교소를 개설하면서 창립한 조동종의 사찰이다. 36년을 일인 승려들에 의해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운영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김남국 스님께서 동국사(해동대한민국)로 개명하여 조계종에 종여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 빼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동국사이다.

사실 최근까지도 일본 사찰이라 펼쳐되어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기보다는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잔재 청산 사업으로 일제의 이미지를 지워내고 2002년에는 동국문화재법으로 일부 근대 문화유산이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다. 실제로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칼날 같은 세월을 교훈삼

아 견뎌온 동국사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국사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은 대웅전이다. 일본 에도 시대 건축양식으로 지붕몰매가 75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기후 영향이 미친 미서기 창문, 그리고 직접 일본에서 가져온 삼나무로 지어진 독특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또한 한국 전통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단청이 전혀 없이 담백하며, 법당과 요사채가 한 건물로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심스레 들어간 대웅전, 그곳에는 석가여래 삼존상과 좌우 가섭존자, 아난존자 입상이 모셔져 있다. 모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불상을 유리로 보호해 놓은 것이 웬지 모르게 가슴을 찡하게 했다.

우리는 참배 후 신기한 듯 법당을 둘러보았다.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청동지장 보살님 그리고 도량을 언제나 외호하시는 든든한 신장님,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언제 뵈어도 한결같은 반가움이 여느 사찰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법당 내부에는 천개와 수미단 외에는 일제의 유물이 거의 없다. 천개 天蓋는 ‘하늘을 덮는다’ 하여 부처님 위에 화관처럼 달려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 더욱 신기했다.

대웅전을 나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일본 범종각, 33관음 및 12지본존석불상을 볼 수 있다. 종각의 특이한 점은 일반 범종과 달리 용두가 쌍두이고, 높이 매달려 있다는 점이다. 유명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종은 1917년 100% 일본인이 시주한 것으로 규격에 철두철미한 일본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종각 앞에 빙 둘러선 자그마한 석불상들도 매우 특이하다. 마치 주술과 밀교적 성격이 강한 일본불교가 그대로 읽혀지는 듯 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동국사에서 절대 빼칠 수 없는 역사적 보물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참사문비’이다.

“일본국체와 불교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일본문화를 강요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왔다. 게다가 불교적 교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을 석가모니 세존과 삼국 전등의 역대조사의 이름을 빌려 행해 왔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해외 포교 역사 속에서 범했던 중대한 과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아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참회하고자 한다.





### (중략)

불법을 국가 정책이라는 세속적 법률에 예속시키고, 나아가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두 가지 잘못을 함께 범한 것이다. 우리는 맹세한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과거 일본 역압 때문에 고통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포교했던 조동종 해외전도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 참사문비 내용의 일부 -

동국사를 창건했던 일본불교의 종단(조동종)에서 공식 발표한 글로서 그 옛날 식민지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동종의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이다.

동국사를 지원하는(일명 동사보)에서 전립한 것으로, 아픈 역사조차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동국사, 이제는 그 누구와도 적이 아닌 같은 수행자로서 1년에 한번 합동 다례재를 지내며 화해의 장을 열고 있다. 웬지 모를 개인함과 따뜻함에 한참을 참사문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듯 대웅전 뒤 대나무 숲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이곳 일본 대나무 숲은 흥미롭게도 봄에 낙엽이 진다. 잠시 눈을 감고 가을바람을 만끽하며 자연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껴본다.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낸 올곧은 정신이 나를 깨울 때, 이곳 주지스님께서 동

국사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까보다 한껏 가볍게 이는 설렘으로 들었다.

근대라는 시기는 우리에게 그다지 즐거운 인상을 주지 않는다. 식민지로 있었던 동안 수탈과 학대를 받았기 때문일까.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대였던 만큼 소중한 가치도 적지 않다. 불의에 항거한 저항과 독립 정신, 우리 민족 전래의 순수한 문학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한 조상들의 노력, 폭풍처럼 밀려든 외래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예술과 문화를 창조한 점 등 재조명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워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흔을 남긴 역사라도 때론 남겨둠으로써 되새겨 보고 의미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동국사에 와보지 않았다면 근대 불교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도량 곳곳엔 당시의 기운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세기 이전, 이 땅에 존재했던 일본인의 혼적을 완전히 지워내기보단 시간이 멈춘 공간으로 말없이 역사의 빈자리를 지키는 동국사는 지금 역사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찬란했던 역사이고 있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의 뼈아픈 근대 역사이다.

돌아오는 길에 주지스님과 함께 군산근대박물관에 들러 주지스님의 설명과 함께 동국사에서 기증한 유물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한국불교의 자긍심을 일깨웠다. ●

일심동체一心同體

진용/사집과



## 리더스 웨이

The leader's way

– His holiness The Dalai Lama and Laurens  
Van Den Muyzenberg

동환 / 한문불전대학원 1학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수행을 한 덕분이다.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내는 걸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스스로 깨쳐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수행을 만족할 때 그제서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불교는 인간적인 종교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마음 수행이 필요하다.

- 서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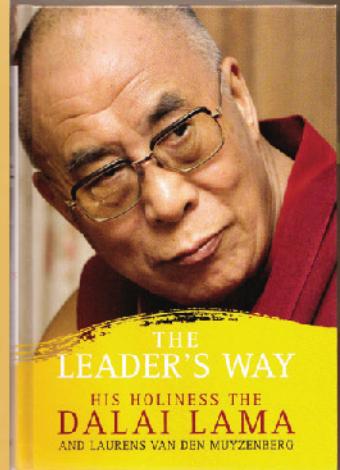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 동안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한편, 격변의 세월을 오롯이 견뎌내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그렇다. 리더라.

이른바 ‘리더’라고 한다면 국가의 수장이나 정치인, 기업가 등을 떠올린다. 그들은 정치·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성공에 대한 선례를 제시하는 그들이지만, 사람들의 정신까지 이끌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그것은 기술과 물질 면에 있어서 발전을 거듭한 현대 사회의 숱한 구성원들이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듯 시대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달라이 라마는 많은 책을 통해 소통해 왔다. 그 가운데서도 ‘리더스 웨이’는 조금 특별하다.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와 경제학자인 라우렌스 판 덴 마위첸베르흐와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이 책은,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스님은 정신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을 수용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하고, 경제학자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사회 생활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 DALAI LAMA



책의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와 불교는 서로 거리가 멀어 보이나 두 분야 모두 행복을 중요시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 또 리더란 늘 침착하고, 평온하며,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결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며, 많은 이들의 공동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늘 확인하고 스스로의 고통은 물론, 다른 이의 고통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리더의 책임감은 불교 수행자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기업, 리더와 리더, 직원과 직원 또는 기업과 리더, 직원 등 서로가 유기체처럼 얹혀 있는 사회 생활의 관계는 인드라망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인연의 고리와 실타래처럼 얹혀 있는 이 관계의 공동 목표는 ‘행복’이다. 그 결과가 물질과 재화라는 자본적 가치로 드러나고 다시 숫자로 그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정신적 가치와는 다르다. 하지만 불교가 설하고 있는 인드라망을 기업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면, 자신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자본적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복과 물질적 결과물인 돈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생각해 본다. 개인 간의 빈부격차는 염연히 존재한다. 그 격차에 대한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늘 남과 비교하곤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모른 채 해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집착을 통해 새로운 고통을 자기 인생으로 끌어들이곤 한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경쟁과 비교의 삶에 지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 ‘리더스 웨이’는 리더는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조직을 바라보고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내놓은 책이라 생각한다. 정신적 갈증을 해소해 줄 영적 감로수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넘쳐흘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이 책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 소통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더 많다.**

**다양한 상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명료해지는 것이다. 소통은 남과의 상호작용인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한다. 또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중생은 홀로 아파한다. 그 아픔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소통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다.**

**소통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진실한 나와 만날 것이다.**

최근 대중스님들이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스님의 법문 소식이 전해지자 여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반가움과 기대로 미리 법문 후 있을 질문 내용까지 챙겼다.

“글로벌시대의 수행과 포교”라는 주제로 시작된 법문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현실적 고민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으며, 연이어 질의 응답시간에는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며 체험적 수행을 통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어려운 비유나 금구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로 초점이 집중되어 주인공인 우리들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한 감동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말씀뿐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말씀이기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종교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을 마주하고,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후련하게 해결해 주시는 스님의 리더십은 그 핵심이 바로 소통에 있다고 느껴졌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질문과 의심을 다양한 방편으로써 끊임없이 답하시어 그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내용을 경전마다 흔히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원만하게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부처님 법을 만나 대중과 함께 수행하며 부처님 제자로 함께 가겠노라는 벅찬 맹세와 공감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거라고 믿고서 시작한 길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유연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갈등했었다.

무관심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또는 강요된 봉사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고려치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착각을 상대를 향해 주장한 적은 없었을까?

부처님께서는 경전마다 소통의 방편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건만….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고집하면 분노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그것은 염연히 욕심이다. 우리는 왜 상대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나에 대한 관심보다 더 적은 걸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촉이 오직 나의 만족에 고정되어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소통에 필요한 다른 하나는 인내심이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훈련은 수행자가 아니라도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성급하게 다그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면 상대는 소통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더 많다.

다양한 상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소통은 남파의 상호작용인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한다. 또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중생은 홀로 아파한다. 그 아픔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소통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다.

중생이 아파서 보살도 아프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유미경 속의 말뿐인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왜 소통해야 하는지는 이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발견하신 연기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다.

소통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그러면 그 속에서 진실한 나와 만날 것이다. ☺



▲ 동안거 결제 제사



▲ 김장 대중 울력



▲ 오백전 백일기도 외향



▲ 교회부 시장법회



▲ 제 6회 전강식 및 보현율원 제 5회,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제 2회, 승가대학 제 50회 졸업식

## 운문소식

- 11월 17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비로전에서 결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19일 배추뽑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0일 대웅전에서 보광사 비구니 성우 스님 삼재 제사가 있었습니다.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일본어수업, 요가 및 서예외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1월 21~22일 김장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30일 ~ 12월 1일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제 5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 교회부스님 33명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2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대웅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포살은 학감 진광 스님께서 맡아주셨고, 산내 암자스님들도 참석 하였습니다.
- 12월 3일 학장스님과 대교반 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3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이 오백전에서 있었고 청풍료에서 일진주지스님께서 회향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12월 20~23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25일 교회부스님들이 주관하고 대중스님들이 후원한 어린이 시장법회를 청풍료 어린이 법회장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1월 3일 필공총림 방장 진제 종정 예하께서 계사년 반산림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1월 7일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1월 10일 졸업을 앞두고 화엄반 스님들이 부설 운문유치원(원장 제 44회 도진 스님) 견학을 하였습니다.
- 1월 13일 제 6회 전강식 및 보현율원 제 5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 2회, 승가대학 제 50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 1월 20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24일 ~ 3월 6일 새 학기 재충전의 기도 시작 겸 40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도와주신 분

• 배순애 • 최경아 • 이기태 • 주건우  
 • 주계숙 • 권혁창 • 노혜옥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나  
 신청을 원하시는 재기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로전 후불벽화

## 통권 127호, 겨울호, “해 오름 달”

‘내면의 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올겨울 강원에서의 잊지 못할 가슴앓이를 또 하나 간직하게 됐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저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던 도반스님이 해준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 크지 못한 내면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튀어나와서 감정을 표현한답니다. 그 표현들은 당연히 어른스럽지 못한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감정은 오래전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때의 감정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들을 내 나이만큼 키워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항상 관하고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프고 좋아도 또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또 너를 돌아봅니다. 다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리라 다짐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가요. 자꾸 살피고 또 살피면 언젠가는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 摯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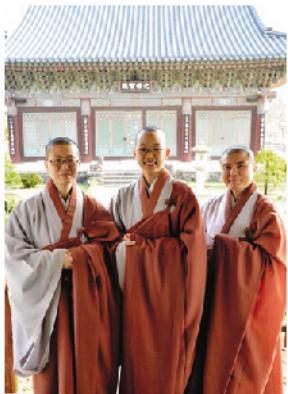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127호 겨울호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깨달음으로 가는길」, 「운문, 운문인」은 쉽니다.

#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b>자 격</b>	1. 2014년 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46기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b>모집인원</b>	사미니과 ○○명
<b>시험과목</b>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b>준 비 물</b>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아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b>모집기간</b>	2014년 1월 6일(음력 12월 6일) ~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b>도착일시</b>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b>시험일시</b>	2014년 1월 20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b>교 통 편</b>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회주 명성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홍률  
주지 일진

<b>모집대상</b>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4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b>모집인원</b>	○명
<b>제출서류</b>	1. 입학원서(본 대학원·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b>전형방법</b>	서류심사, 면접
<b>준 비 물</b>	가사, 장삼, 승려증
<b>전형일시</b>	2014년 1월 19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홍률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27호 · 2014년 1월 11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교문 · 진광 · 편집 · 운문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나경 / 편집위원 · 나경, 규현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나경(귀로繕部) / 삽화 · 해운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